

# 식음 공간의 도입부를 통한 현상의 전이적 지각 체험에 관한 연구

Study on transitional perception experience of phenomenon through  
the introductory parts of eating and drinking spaces

유한희\* / Ryu, Han-Hee  
김문덕\*\* / Kim, Moon-Duck

## Abstract

From 20th century, the perception of the problem on self-loss originated from philosophy and emerged in the pursuit of study on humans in real life, not from metaphysical questions. In particular, Phenomenon theory originating from Husserl has been unfolding around, above all, body concepts about human experiences. This is the part where Phenomenon theory finds its meaning as an analytical method of real space concepts. In addition, subjects' perception of situation is done through sense organs not only with sight but also with space-sensible aspects. And since these perceptions are done in consecutive and procedural times, they are done in the experience which shows transitional attributes. The experience elements of transitional senses in situation should be considered more about perception experience of human beings than other spaces, and classify into physical and program elements the introductory parts of eating and drinking spaces where the movements of active perceptionists and the flow of spaces can be felt. And this grants experimental, not usual, character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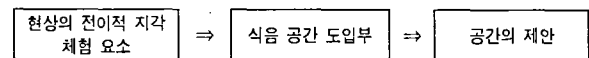
키워드 : 현상학, 전이, 지각 체험, 식음 공간, 도입부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근대 이후 서구의 공간 인식은 산업화에 의해서 자아가 상실되고 시각에 의존하는 관찰자 시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공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부재라는 큰 모순을 야기시켰고 공간의 본질인 인간은 무시되었다. 또한 서구의 공간 개념을 무분별하게 도입한 현재 우리의 공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20세기에 이르러 자아 상실에 대한 문제 인식은 철학에서 시작되어 형이상학적 물음이 아닌 현실 속에서 인간에 대한 탐구를 추구하는 속에서 대두되고 있다. 훗날로 시작되는 현상학은 인간의 체험에 대한, 특히 신체의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공간에 있어서 현상학에 대해 주목할 부분은 본질을 '드러나게'하는 주체인 신체 즉, 자아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현상이 실존적 공간 개념의 해석 방법으로서 의의를 갖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학의 신체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공간에 대한 해석적 방법을 통해서 공간의 본질인 인간 자아에 대한 인식과 공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하고, 그것의 실제 공간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공간의 본질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현상의 실존적 해석인 신체를 통한 시각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공간과 인간은 전이적 관계를 맺고 있고, 이는 인간의 지각 체험을 통해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고, 오리엔탈 스타일 트렌드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공간적 접근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전이적 지각 체험의 요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식음 공간의 도입부를 중심으로 도출된 물리적·기능적·각적 지각 체험 요소를 검증한다. 따라서 도입부를 중심으로 특징을 보이고 도입부와 내부 공간 사이의 전이적 영역이 발견되는 식음 공간을 선택하고,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공간 분석을 위해 외국 사례와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가능한 실제 사례 공간을 경험하고 분석하여 공간의 본질인 인간의 체험적 공간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과정

\*\* 회장,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 2. 현상의 전이적 지각 체험에 관한 고찰

### 2.1. 공간에서 현상의 전이

#### (1) 현상의 개념과 대상의 지향적 내재성

‘현상’의 어원은 ‘드러내는 것<sup>1)</sup>’으로, 현상학의 창시자인 훗설<sup>2)</sup>은 의식에 드러나는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물 자체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현상학은 본질을 서술하는 것이고, 본질은 현상 자체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학은 대상에 드러나는 존재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철학적 기반을 갖는다.

한편, 현상학에서 언급하는 ‘대상’은 사유 속에서 드러나고 ‘선험적’으로 환원<sup>3)</sup>된다. 훗설은 “대상 자체에 관계하는 인식도 그 근원을 인식의 인식 작용으로 되돌아 들어가는 한 모두 선험적이 된다.”고 했다. 현상의 의미가 형성되는 상호 관계는 개인적 판단과 편견을 유보하고, 대상을 자신의 의식에 드러나는 것으로 파악한다. 훗설은 이를 “우리의 의식은 지향적이다. 의식은 무엇에 개방된, 상관 관계다.”라고 설명한다.<sup>4)</sup>

지향성은 어떤 것에 관한 의식을 뜻하며, 인간이 대상에 대한 여러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인식은 ‘~에 관한 의식’으로 주관적으로 나타나고, 관념적이지 아닌 인간의 인식 행동 자체에서 지향되어진다. 훗설은 이러한 지향성의 이론을 바탕으로 잘못된 심리학적 견해-심리적, 물리적 대상들과의 혼동<sup>5)</sup>-를 제거하려 하였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는 현상학적으로 순화된 지향성의 개념을 선험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고, 이는 철학적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 (2) 현상적 분석에서 본 전이

현상은 지향성 개념으로 인해 그 자체에 연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이고 과정적인 시간의 특질을 지닌다. 따라서 현상은 전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공간에서 현상의 전이는 체험을 통해서 인식되는데 이는 물리적, 기능적 관계와 더불어 여러 감각적 요소들의 변화에 따라 인지된다. 특히 이것은 인간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지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sup>6)</sup>, 건축에 있어서 현상의 지각은 공간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공간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이

1)현상은 ‘자신을 내보여준다.’는 의미로, 그리스어 ‘Phainesthai’에 기원을 둔다. 즉, ‘자신을 그 자체로 내보여 주는 것’, ‘드러내는 것’이다. M.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까치글방, 1998, p.49

2)훗설(Edmund Husserl, 1859~1938), 독일의 철학자

3)훗설에게 있어서 ‘인식 형성의 원천으로 되돌아 가려는 동기’는 모두다 ‘선험적’이고 이는 ‘선험적’일 필요는 없고 우리의 시선을 주관의 의식 작용으로 돌리기만 하면 그것은 곧 ‘선험적’이다.

4)조셉 J.코겔만스, 임현규 역, 훗설의 현상학, 청계, 2000, p.147

5)박진영, 현상학적 지각에 의한 벽의 현상적 연출에 관한 연구, 건대 석론, 2003, p.7

6)메를로 폰티는 이를 체화된다고 표현한다.

다.

즉, 인간은 현상의 전이를 지각함으로써 공간의 여러 요소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공간의 본질인 자신을 인식하고, 공간과 인간의 전이적 관계를 능동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 2.2. 현상의 전이적 지각 체험 요소 분석

공간의 인간 부재라는 모순 인식으로, 다양한 현상이 관찰자의 지향적 인식 하에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따라서 관찰자의 다양한 지각 체험이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구로가와 기쇼는 “80년대 이전 근대 사회의 기능주의, 효율성 그리고 서구적 이원론은 환경 설계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했으며, 기능이나 효율성의 논리로 명확히 2개의 공간으로 나눔으로써 그 중간에 있던 애매한-그러나 애매하기 때문에 대단히 농밀한 여러 가지 다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중간 영역을 무시해버렸다.”<sup>7)</sup> 라고 지적하면서 전이적 성격을 공간 간 경계 즉, 내·외부라는 이원적 사고에서 탈피한 중간 영역의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공간과 인간의 관계는 경계는 물론 과정에서도 파악되어야 한다. 특히, 구분과 연결, 정지와 흐름 등 공간과 관찰자 간 움직임의 관계적 특성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현상의 전이적 지각은 인간과 공간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며, 인간의 움직임을 통해서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한편, 현상의 전이적 지각 체험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은 상대적이지만, 문화적·심리적 반응 같은 공통 부분을 발견할 수 있기에 요소로 분류할 수 있는 전제를 가진다.

<표 1> 문화적·심리적 공통성

요소	비교 대상	사례		공통성
		동양	서양	
문화	건축	차경	큐비즘	중첩과 관입
		가구식 천정	리브롤트 천정	구조 미학
심리	공간지각	사이의 공간에 의미를 둘	물리적으로 빈 공간으로 인식	Solid와 Void 차이로 공간 인식

#### (1) 물리적 요소

##### ① 형태

공간은 Solid와 Void의 물리적 경계를 통해서 지각되고, 건축 기본요소인 바닥·벽·기둥·천정 등과 함께 형태를 인지한다.



<그림 2> Solid와 Void를 통한 형태의 인지

7)黒川紀章, 중간영역으로서의 길과 건축, 서울 태림문화사, 1996, pp.217~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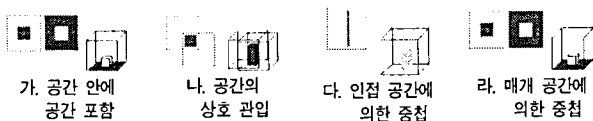
건축의 기본 요소인 '바닥'은 높이 차이에 따라서 시각적, 공간적 연속과 분절을 발생시킨다. '벽'은 시선의 유도, 차단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소로 개구부(문·창)를 통해 공간의 상호 유입을 조절, 공간의 흐름을 결정한다. 또한 벽과 기둥에 의해서 심리적 공간의 구획도 이루어진다. '기둥'은 위치에 따라 공간의 흐름과 볼륨을 조절하여 공간의 위계를 형성하고, 긴장감을 발생시키며, 체험자에게 방향성을 제공한다. 바닥과 '천정'의 간격은 심리적으로 공간의 크기를 제어하여 조절을 통해 다양한 전이적 공간을 형성한다.

<표 2> 공간 건축의 기본 요소

바닥	벽	기둥	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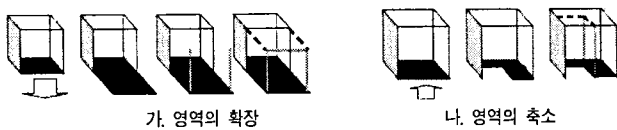
② 구성

'중첩과 관입'에서는 각 공간의 특성을 유지시키는 성향에 주목할 수 있는데, 주공간은 매개 공간에 의해 분절되지만 각 공간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또한 매개 공간에 의해 서로 다른 공간의 느낌을 순화시키고, 기능의 분리 또는 보완적 요소의 연결에 용이하다.



<그림 3> 중첩과 관입

'확장과 축소'는 공간의 방향성에 의해 형성되고, 내·외부 공간을 연결하는 축을 지나게 된다. 또한 내·외부 공간의 상호 관입에서 발생하여, 인접부를 공유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각 공간이 결합될 경우 그 사이에 전이 공간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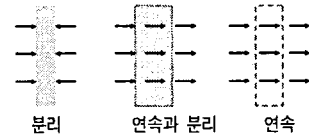


<그림 4> 확장과 축소

'연속과 분리'는 공간의 인접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성으로 인접 공간은 각각의 영역을 확보하고 상호 공간의 기능적, 상징적 요구를 수용한다.<sup>9)</sup> 또한, 인접 공간의 시각적, 공간적 연속에 의해서 공간의 전이가 체험될 수 있다. 분리는 주로

8)F. D. K .Ching, 황연숙 역, 건축의 형태공간, 도서출판 국제, 1996, p.102~113  
9)F. D. K. Ching, 전개서, pp.102~113

수직적 요소에 의해 이뤄진다. 연속과 분리는 각 공간의 개별적 성격보다는 공간과 공간을 관통하여 흐르는 체형 위주로 인식되어, 공간의 동질성과 불확실성을 체험<sup>10)</sup>하게하는 요소이다.



<그림 5> 연속과 분리

(2) 기능적 요소

① 진입부

'출입문'은 진입 유도와 분리로서 내·외부 공간을 연결하고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는 부분으로서 스케일이 다른 두 영역 간을 연결한다. '로비'는 사고 활동이 유발되는 동적 공간으로 가장 공적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통과하는 공간이다. 또한 진입 쪽에 위치하여 공간의 내·외부를 연속적으로 이어주고, 내부의 각 개별 공간으로 동선을 잇는 전이 공간이다.

② 과정부

'복도'는 동선의 거점으로 연속성과 방향성을 지닌 요소<sup>11)</sup>로서 공간 구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위치에 따라 공간의 구조적 패턴에 영향을 주며 공간을 연결하는 매개의 역할도 한다. '계단과 경사'를 통해 지각자의 이동속도를 줄이고 새로운 공간 지각을 준비하여 공간의 변화를 경험한다. 통로이자 수직 이동 장치의 기능을 물론 수평에 대한 수직으로 공간의 상승감이나 중심성, 상징성을 연출한다. '다리'는 독립되어 있는 두 공간을 연결하는 기능적, 상징적 요소이다. 하지만 하나의 개별 영역으로써 의미를 가지며, 다음 공간에 대한 기대적 중간 위치이다.

③ 정지부

'홀'은 중심 공간으로서 출입문·복도·계단 등 연결 요소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아트리움, 선큰, 중정'은 실내에 외부 공간을 관입시켜서, 개방과 활력을 부여한다. 내·외부와 상·하부를 연결시켜 동적·정적 공간의 흐름을 형성하고 지각자는 이를 통해 공간의 변화를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인지한다.



<그림 6> 진입부 과정부 정지부

(3) 감각적 요소

① 정위<sup>12)</sup>

10)이수호, 박물관 건축에 있어서 전이 공간의 구성 유형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론, 1997, p.29  
11)K. Lynch, The Image of the City, Mit Press, 1960, p.47, 개인용  
12)정위란(定位:Orientation)란 움직임의 주체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인식으로서 전체 공간에 있어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지각자의 위치 즉, 정위의 문제는 대부분 공간의 경계부에서 제기되는데, 공간에 대한 체험을 마치고 다음 공간으로 진입시 자신의 위치와 방향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진입부의 전이 공간은 공간의 영역과 경계를 한정하면서 관찰자의 정위를 인식시켜, 자신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따라서 지각자는 이를 감각적 반사 반응으로 감지한다. 공간 구성 요소는 고정되어 있지만 공간을 지각하는 주체인 지각자는 움직이며 지각하기 때문이다. 지각자는 시각적 공간 경계의 수평·수직을 인지하여 정위를 마련하고 공간의 위치를 파악한다.

### ② 인지

‘지각 심리’는 외부 자극을 감각 기관을 통해 지각자의 상태·경험·환경에 따라 인지하는 것으로 인간의 공통적 속성이 다. 지각자의 심리적 성격은 공통점과 차별점이 있어서 지각자의 상황에 따라 보편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인지된다.

한편, ‘시점의 변화’는 인간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장면을 인지하는 경우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에 대한 고정된 인간의 장면 인지의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표 3> 지각 심리의 요소

지각 심리	내용	사례
밝기 지각	눈의 진동하는 물리적 속성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서 눈을 움직이면 중앙의 부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색 지각	다른 색으로 인해 대상의 느낌이 달라진다.	
형태 대상 지각	보는 각도가 달라져서 망막상에 다른 모양으로 보여도 동일한 모양으로 지각하는 형태 항상성을 보인다.	
지각 체계화	역전성 전경-배경 그림의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의 지각은 단순히 윤곽을 결정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대상을 지각하기 위한 전경 배경 체제화의 과정을 가진다.	
불가능한 도형	전체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자세히 보면 불가능한 도형은 대상 지각이 항상 정확한 인지가 아닌 국소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리에 의해서도 일어남을 보인다	
깊이, 크기 지각	밝기와 기울기 등은 3차원의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항상성과 착시	오른쪽 밑의 작은 사람과 홀 중앙의 작은 사람은 동일한 망막상의 크기를 갖지만 전자가 작게 보인다. 깊이지각의 단서를 인지하기 때문에 거리가 달라도 크기를 보상하려는 지각항상성 원리가 작용한다.	
운동지각	움직임에 따라 4각형들이 찌그러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림 7> 시점의 변화

다. 따라서 정위는 ‘어디에 있는 것 이상의 위치에 대한 의미이다. 그것은 주로 장소, 통로, 영역들이 지닌 특별한 성격과 동일시되며, 사물의 공간적 상호 관계를 의미 한다. 도구환, 건축물 공간 변화를 통한 전이성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91호, 1997, p.25

## 2.3. 소결

<표 4> 현상의 전이적 지각 체험 요소

대분류	소분류		
	형태	기본 요소	Solid & Void
물리적 요소			형태
	벽		
	기둥		
물리적 요소	구성		중첩과 관입
			확장과 축소
			연속과 분리
기능적 요소	진입부		출입문
	과정부		로비
			복도
	정지부		계단 / 경사
			다리
감각적 요소	정위	인지	홀
			아트리움 / 신크 / 중정
			지각자의 위치
감각적 요소	인지	시점 변화	지각자의 심리
			인간의 움직임
			시간의 흐름

## 3. 식음 공간의 도입부를 통한 분석

### 3.1. 현상적 접근에서 본 식음 공간

#### (1) 식음 공간의 공간적 위치 : 제 3의 공간

식음 공간은 상업적 역할과 동시에 휴식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피스 공간이나 주거 공간과는 다른 성향을 지닌다. 이에 오늘날의 식음 공간은 제 3의 공간<sup>13)</sup>이라 불리우며 보다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최근 오리엔탈 스타일 등의 트렌드 반영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간적 체험 위주의 감성적 요소가 전이적 공간에 도입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식음 공간의 계획은, 물리적 구성의 기본 요소와 더불어 공간적 체험에 대한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식음 행위와 더불어, 사교·휴식·감성적 자극 행위 등이 인간 주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음 공간은 다른 공간들에 비해서 인간의 지각 체험에 많은 부분 관계되고 고려되어야 하므로 현상의 전이적 요소의 도입이 중요해진다.

#### (2) 분석의 전제 : 식음 공간의 도입부

식음 공간은 고객의 동선 측면에서 도입부·안내부·식음 행위부·기타 서비스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다수의 도입부는 내부 공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간적 체험에 대한 요구로 도입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계획이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지각자가 전이적인 지각 체험을 통해서 공간을 지각할 수 있는 식음 공간의 ‘도입부’를 전제로 2장에서 도출된 현상의 전이적 지각

13) 식음 공간 컨설턴트 신성순의 인터뷰 중

체험 요소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검증하고, 계획 요소로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3.2. 식음 공간의 도입부를 통한 현상의 전이적 지각 체험 사례 분석

#### (1) Philippe Starck - Super dry hall

출입구의 검은 박스가 호기심을 유발하여 내부로 들어가기 전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준다. 내부로 들어서면 곡면의 벽이 시선을 끌고, 사선으로 넓어지는 계단과 유선형의 불륨을 갖고 있는 기둥의 대비로 연출된 극적인 무대 공간이 펼쳐진다. 극적인 계단 요소는 카페 코스트(Cafe Costes)를 시작으로 필립 스타크의 식음 공간 도입부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특히 조명과 비일상적 스케일의 오브제 연출로 그가 추구하는 초현실적인 공간 계획과 공간으로의 전이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림 8> Felix restaurant <그림 9> Thearon <그림 10> Cafe Costes

#### (2) David Chipperfield - Wagamama restaurant

실제 홀은 지하층에 계획되어 고객은 주방이 가려진 지상층의 조명으로 유도된 긴 복도를 지나 지하로 진입한다. 이 과정에서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직접적 수평 진입이 아닌 수직 진입 체험과 Void를 통한 지하와 지상의 수직적 연결 등에 의해 좁고 긴 복도의 공간감을 극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

<표 5> 식음 공간 도입부를 중심으로 검증한 현상의 전이적 지각 체험 요소

실내 공간의 사례	개요	도면	이미지	분석
(1) 필립 스타크 Philippe Starck Super Dry hall	• 비어홀 • 도쿄, 일본			곡면의 평면, 유선형 기둥, 높은 층고, 중층 등 구축요소로 인하여 비일상적인 공간 지각이 이뤄짐을 알 수 있다. 극적인 사선의 계단을 통해서, 지각자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질 수 있고, 곡면의 평면에 관입된 형태를 인지할 수 있다. 곡면의 벽은 지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상대적이고, 비일상적 형태는 다른 공간감을 느끼게 하고, 계단부의 조명으로 인하여 동선을 유도한다.
(2) 데이빗 칩퍼필드 David Chipperfield Wagamama	• 레스토랑 • 런던, 영국			지상을 통해 지하로 진입되는 복층의 평면 계획과 Void를 통한 수직적 동선의 연결은 물리적 전이가 이뤄진다. 길어진 진입부의 동선은 과정적 성격을 갖는다. 지각자는 지상층의 긴 복도 공간을 통해 목적 공간까지의 정위와 방향성을 지각할 수 있다.

#### (3) Need 21 - 라 센다이

묵(墨)을 주제로, 철 등 물성에 충실한 디자인으로 감성적 지각을 유도한다. 매개공간인 1층의 피막 칠 된 터널과 2층의 곡선 수로와 물 속 광섬유는 전체 공간에 동양적 고요함을 주는 지각적 요소이다.

#### (4) Paiksun design - 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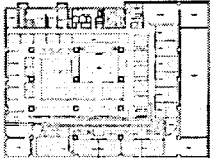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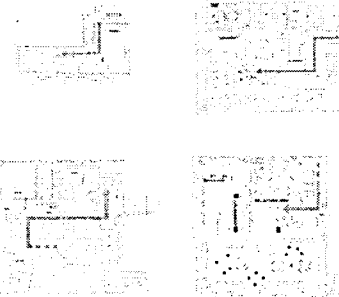

긴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면 내부 공간과 연결되는 무채색의 도입부가 하나의 영역을 형성한다. 물·빛·현무암으로 마감되어 강한 인상을 주고, 내부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준다. 진입 복도의 천장에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음악 소리에 맞춰 반응하는 녹색 조명이 설치되었고, 좌우 수(水) 공간의 진입로를 따라 끝까지 가면 홀로 들어서는 문을 만난다. 내부는 화려한 빛의 산란과 굴곡, 넓은 개방감 등 도입부와 상반되는 이미지로 지각자의 심리적 전이를 극대화 하고 있다.

#### (5) Jeon'n associates - 드빌 禾水木 125

각 층마다 식음 공간이 계획되었는데, 지하의 바(bar) 공간에서는 '신발을 벗는다.'는 문화적 공간 정서를 보여준다. 1~2층의 카페(cafe)는 들어서자마자 만나는 커다란 계단이 입구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일상적이지 않은 공간감을 제시한다. 이기로 마감된 난간, 자연광과 타원형 인공 하늘은 공간에 대한 고객의 기대감을 일으킨다. 3층 와인바에서는 불규칙적으로 흩어진 노출 기둥과 커튼의 공간 분할을 볼 수 있다.

## 4. 제안 및 결론

공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현상의 전이적 지각 체험의 성격에 주목하여 실내 공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전이적 지각 체험의 물리적·기능적·감각적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의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지각 체험 요소에

(3) 유정한 Need 21 라센다이	• 일식 레스토랑 • 서울, 한국			넓은 물성의 무게감이 동양적 차분함을 주고, 긴 터널 요소를 갖는다. 투과되는 구조로 실내가 실외로 확대되고, 1·2층의 매개 공간(통로, 수로)으로 연결된다. 흑색이 주는 심리적 차분함이 공간을 아우른다.
(4) 김백선 Paiksun design 천상	• 멤버십 클럽 • 서울, 한국			현우암 벽체와 계단으로 지하로 들어서면 블랙 컬러의 도입부의 길고 큰 규모에 놀란다. 긴 도입부를 통해 주 공간(홀)에 도달했을 때, 보다 극적으로 상반되는 이미지를 지각할 수 있다. 물·빛·현우암 마감의 무채색 도입부는 조명과 함께 공간을 더욱 비밀스럽게 한다.
(5) 전시형 Jeon'n associates 드빌 禾水木 125	• 카페, 레스토랑 • 서울, 한국			3층의 자유롭게 놓인 기둥들에 의해 생기는 영역성을 발견할 수 있다. 지하 1층의 홀 부분의 아크릴 조명 바닥은 등선의 유도는 물론, 감성적 지각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좌식 공간을 Bar라는 서구적 공간에서 만나게 되어 고객은 오히려 새로운 지각을 하게 된다. 또한 복층 카페가 시작되는 입구의 비밀상적 계단의 위치가 감각적이고, 신발을 벗음으로써 감성적인, 따뜻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식음 공간의 도입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현상의 전이적 지각 체험 요소가 발견되었고 특히,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를 찾을 수 있었다.

<표 6> 현상의 전이적 지각 체험 요소에서 도출된 제안 요소

요소		내용					도출된 제안 요소
대분류	소분류	(1)	(2)	(3)	(4)	(5)	
물리적 요소	형태	자유평면, 곡면, 중층, 고층고, 기둥	복층, Solid & Void	투과 입면	Solid & Void	기둥	비밀상적 형태, 스케일
기능적 요소	과정부	사선 계단	긴 복도	긴 통로, 수로, 계단	긴 복도, 계단	계단	긴 복도, 계단
감각적 요소	인지	비밀상 형태	방향성	물성, 동양요소	대비요소	문화·자연 요소	문화적 감성

· 물리적 요소로서, '형태의 비밀상적인 표현'을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산업화에 따른 공간 개념의 일상적인 형태가 아닌 자유 평면과 유선형 요소, Solid와 Void 대비를 통한 입면의 투과와 형성, 복층 개념과 높은 층고 등이다. 또한 '스케일의 변화'를 통해서 더욱 극적인 전이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기능적 요소로는 특히 과정부의 '긴 복도'가 사용되어, 내·외부 공간의 중간 영역으로서 다음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다양한 스케일, 과감한 사선 등 비밀상적인 '계단 계획'은 수직적 전이와 중심성을 보이고 있다.

· 감각적 요소는 '문화적 감성'에 접근하는 흔적이 발견된다.

이성에 치우친 서구 문화에서 잃은 자아를 찾기 위해서 동양 문화로 관심을 갖는 것을 반영하듯 좌식 문화, 목 등의 동양적 감성으로 지각자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상의 전이적 지각 체험 요소는 큰 특징을 보이는 범위에서 분류되고 있지만, 서로 영향을 끼치며 다양한 지각자의 전이적 지각 체험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식음 공간의 도입부를 통해 검증한 현상의 전이적 지각 체험 요소 중 '비밀상적 형태와 스케일, 긴 복도와 계단, 문화적 감성' 요소는 공간과 인간의 본질적 관계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식음 공간 뿐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도 적용되어 공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Frampton, Kenneth, Modern Architecture ; a critical history, 3rd ed., Thames & Hudson, London
2. K. Lynch, The Image of the City, Mit Press, 1960
3. M.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까치글방, 1998
4. 조셉 J. 코겔만스, 임현규 역, 후설의 현상학, 청계, 2000
5. 黒川紀章, 중간영역으로서의 길과 건축, 서울 태림 문화사, 1996
6. F. D. K. Ching, 황연숙 역, 건축의 형태공간, 도서출판 국제, 1996
7. 김홍수,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으로 조명된 1980년대 이후의 새로운 건축 공간 개념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론, 2001
8. 김미숙, 진입과 연결에 의한 과정적 전이공간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론, 2001
9. 마재성, 空間의 連續性 俱現을 위한 都心地 商業空間計劃에 關한 研究, 영남대 석론, 2002
10. 박진영, 현상학적 지각에 의한 벽의 현상적 연출에 관한 연구, 건대석론, 2003
11. 김수현, 체화(體化)된 건축, 경시대 석론, 2000
12. 이수호, 박물관 건축에 있어서 전이 공간의 구성 유형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론, 1997
13. 도규환, 건축물 공간 변화를 통한 전이성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91호, 1997